

# IV

2019학년도 모의논술전형

## 인문사회계열 및 간호(인문)

### 인문사회계열 및 간호(인문)

※ 모의논술전형 문항은 출제경향의 참고용으로 실제 논술전형과 난이도, 출제범위 등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년도 논술전형 문항을 참고하여 2019학년도 가톨릭대학교 논술전형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논술전형 가이드북은 본교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문항 1] (가)에 제시된 문제점을 요약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나)의 논지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300~350자 / 20점)**

**가** 근대 이전의 대도시들은 한 국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성장해 왔다. 이후 국가와 국가, 도시와 도시를 이어 주는 항공교통 및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교통·통신 수단이 발달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공간적 분업체계가 형성되어 국가 간의 상호 작용이 촉진되었다. 그 결과 세계 도시에는 국제적 자본이 더욱 집중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세계 도시 간의 계층 구조가 형성되었다. 가장 상위에 있는 세계 도시는 주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선진국에 위치하게 되어 초국적 기업의 중추적 기능과 국제적인 사업 서비스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차상위 세계 도시들은 개발도상국의 세계 도시들로 대륙 규모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도시 체계는 국가 단위에서 상위의 도시들이 하위의 도시를 포섭하고 있다. 따라서 계층적 세계 도시 체계에서 세계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는 세계 도시는 더욱 성장하지만, 갈수록 주변부의 성격이 짙어지고 경제성장에서 배제되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나** 커피, 올리브, 차 등의 기호 작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나 옷이나 카펫, 축구공 등의 단순노동 집약 제품들을 생산하는 현지 노동자들보다는 선진국의 가공 및 판매업자들에게 이윤의 대부분이 돌아가고 있다. 기호 작물이나 아동노동으로 만들어진 스포츠 용품 등의 국제 거래를 자유 시장에 맡겨 놓으면 어떻게 될까? 기업가가 경쟁이 치열한 자유 시장에서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기려면 상품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원료나 노동력을 더 싸게 구입하려고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흔히 자연 생태계 훼손이나, 아동노동 문제, 노동력 착취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에는 생산국의 농민들에 대한 공정한 이윤 배분과 그들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 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 무역이란,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후진국의 생산자들이 만든 좋은 물품을 제값에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직접 원조 대신 정의로운 거래를 통해 후진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운동이다. 공정 무역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를 살리고 참된 관계를 맺는 연대의 경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 무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직거래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된 사업가가 됨으로써 또 다른 기업을 형성하게 되면 공정 무역의 최대 수혜자가 현지 노동자나 농민이 아닌 공정 무역 업체들인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경제가 한정된 기호 작물이나 공산품에 대한 선진국의 수요에만 의존하여 현지인의 자립에 장기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문제점들도 발생한다.

**[문항 2] 제시문 (가)의 수정이가 봉사에 대해 가진 태도를 제시문 (나)와 (다)를 활용하여 서술 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가** 서울시의 한 아파트, 주로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들께서 지내시는 그곳에는 매일 무료 급식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안녕하세요! 도시락 왔습니다.”라는 인사말로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 이제 수정이에게는 익숙한 아침이다. 처음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시작한 일이었다. 봉사활동의 공공적 가치를 알면서도 봉사활동을 힘들고 귀찮은 일로 여겼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요즘 수정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스스로 복지관을 찾는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께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이다. 밥, 국, 반찬이 들어 있는 노란 도시락 바구니를 들고 높은 아파트를 돌아야 하지만 수정이의 발걸음은 가볍다. “아유, 학생 수고하네, 이렇게 매번……” 하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가져간 도시락을 기쁘게 받아 주실 어르신들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나** 의무론적 윤리는 행위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무나 의무를 중시하는 윤리사상이다. 예컨대 “네가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냥 의무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론의 입장이다.

이러한 의무론적 윤리는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삶과 행위의 방향을 잡아주는 보편윤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론적 윤리는 행위의 결과나 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형식만을 중시하거나 인간의 감정이나 행복을 도외시한 채 의무만을 강조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다** 도덕을 ‘인간관계에서의 도리’로 볼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도덕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성을 통하여 도덕 원리를 이해하고 따른다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공감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을 통하여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다. 배려 윤리는 관계 중심의 윤리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배려 윤리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관계처럼 배려하는 사람에게 배려받는 사람이 응답할 때 배려가 완성되는 것으로 본다. 배려하는 사람이 그 응답으로 인하여 기쁨과 위안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받는 사람이 함께 공감하고 교감한다는 측면에서, 배려 윤리는 상호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적인 배려는 낯선 타인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

**[문항 3] (가)의 관점에서 (나)의 밑줄 친 (A)를 설명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가** 우물 안 개구리에게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해 줄 수 없는 것은 개구리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만 얽매어 있기 때문이다. 여름 벌레에게 얼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 줄 수 없는 것은 여름 벌레가 자신이 사는 계절에만 얽매어 있기 때문이다. 《장자》

**나** “어느 날 아침 불안한 잠에서 깨어난 그레고르는 자신이 침대에서 끔찍한 딱정벌레로 변해 버렸음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당돌하게 시작되는 소설을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읽었다. 그러나 나는 이 소설의 발단에 동의할 수 없었다. 사람이 벌레로 변신하려면 적어도 그에 합당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지, 느닷없이 변신이 일어난 다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다니! 그런데 이 돌연한 발단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전혀 빈틈이 없이 세밀하게 사실적으로 전개되어서 비극적 결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읽지 않을 수 없었다.

절대로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영웅호걸이 수없이 등장하여 천하를 두루 다니며 힘을 겨룬다든가, 의협심 많은 도적이 탐관오리를 응징하고 양민을 돕는다든가, 청춘남녀가 온갖 난관을 무릅쓰고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든가 하는 멋진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다. 도대체 카프카는 무슨 의도로 이런 소설을 썼단 말인가. 국어 시간에 배운 문학작품 감상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톨스토이 소설에 탐닉해 있는 단계에서 카프카를 읽게 된 충격은,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듣던 귀로 스트라빈스키의 <불새>를 듣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고, 아름다운 인상과 그림을 보던 눈으로 파격적인 표현주의나 야수와 그림을 보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A)이 충격을 나의 체험으로 소화하는 데는 긴 세월이 소요되었다.

겉으로는 변신했지만, 속으로는 가족과 삶에의 애정을 간직하고 있는 그레고르의 심정을 우리는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끔찍한 이야기라고 말하기 쉽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죽기 전에 길든 짧든 바로 그레고르가 되는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닐까. 나는 30대가 되어서 주변에서 그레고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몇 차례 보고 난 다음부터 언젠가 내게도 그러한 운명이 다가오리라 예견하게 되었다.